

### 광주 남구,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점자 구보’ 발행

이달부터 점·묵자 혼용 120페이지 가량 발간

다양한 정보 전하는 소식통 역할·알 권리 실현

광주 남구는 올해부터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점자 구보’를 매월 발행한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규정 및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해 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격차와 접근성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11월 남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구

정 소식을 비롯해 관내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남구청 소식지 ‘남구 이야기 점자 구보’가 발행된다.

점자 구보는 가로와 세로 190×254mm 크기로, 시각 장애인들이 손바닥에 구보를 펼쳐 놓고 읽기 쉬운 크기로 제작된다.

발행 면수는 구보에 담긴 텍스트 문서 분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20면

전후가 될 예정이다.

점자 구보는 앞면에는 점자, 뒷면에는 묵자를 혼용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점자의 경우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작고 둥근 형태의 점을 불룩하게 제작해 시각 장애인들이 손끝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작 장애인 중에 앞이 보

이지 않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우면서 굵게 인쇄가 가능한 묵자가 사용된다.

시각 장애인 가운데 저시력인 분들이 많고, 가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점자 구보는 매월 150부 발행되며, 관내에 거주하는 시각 장애인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제공될 예정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점자 구보는 정보 취득 및 접근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정보 소식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풍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점자 구보에 담아 규정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희기자

### 곡성군, 올해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대상



곡성군이 올해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단기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까지 지원 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하지만 새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1억 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재산 인정액에서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해주는 금액도 65%에

서 150%로 완화한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500만원에서 731만 4천원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셈이다.

긴급복지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주민복지과(☎061-360-824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 광주 지원1동, ‘동지사랑’ 마을사랑채에 물품 나눔



광주 동구 지원1동 마을사랑채 운영협의회(위원장 김형호) ‘동지사랑’은 지원1동 마을사랑채에서 한지손거울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

혔다.

‘동지사랑’은 한지공예에 관심 있는 여성 마을활동가들로 구성된 지원1동 마을공동체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직접 제작한 수제 한지손거울 66개를 만들어 전달했다.

박연님 동지사랑 대표는 “이번 후원물품 전달을 통해 이번에 새로 개소한 지원1동 마을사랑채를 홍보하고 마을공동체 회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마을사랑채를 주민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지원1동 마을사랑채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최근에 개소한 지원1동 마을사랑채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주민과 마을의 사랑방이자 새로운 주민자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 강진군,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내달 말까지 신청 가능

강진군은 오는 2월 말까지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간 20만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농어업으로, 신청자는 신청서와 영농증빙서류(농지 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사업 시행 직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나, 신청기한 내

에 체납이 해소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청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전년도 지급대상자의 경우 자동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반드시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4월 5일부터 농협 강진군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카드로 발급할 예정이며, 카드 훼손시 최초 카드발급 농협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강진=김영일기자

### 광주 광산구 삼도동 주민자치위, 취약계층에 라면 기부

광주 광산구 삼도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연교)가 7일 새해를 맞아 한부모·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라면 50상자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오연교 위원장은 “나눔 활동

으로 새해를 시작해 뜻깊고, 모두 따뜻한 새해를 맞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형택기자



##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